

이 자료는 **5월 25일(수) 조간**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[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24일(화) 12시]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 | 2022년 5월 24(화) (총 11쪽) | 담당 |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|
| | | | 김인숙 팀 장 (043-880-5421) |
| | | | 김지연 조사관 (043-880-5426) |
| | | |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|
| | | | 이희재 과 장 (044-200-4418) |
| | | | 김지원 조사관 (044-200-4425) |

“ 어린이 안전사고, 걸음마기(1~3세)에 가장 많이 발생 ”

- 영아기에는 ‘추락’, 그 외 연령은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 사고가 가장 많아 -

- 한국소비자원(원장 장덕진, 이하 소비자자원)과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.
 - 최근 5년간(2017~2021년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는 총 109,132건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24,000건 이상 수집되는 등 매년 15,000건 이상 접수되었다.
 - 코로나19로 인해 종합병원의 어린이 환자가 크게 줄어*, 어린이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감소했으나 가정 내,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.
 - * 어린이 위해정보 병원 접수 건수는 '19년 대비 '21년 37.0% 감소(24,354건 → 15,343건)
 - 어린이 안전사고는 ‘주택’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,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. ‘영아기’에는 ‘추락’사고, 그 외 연령대에는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, 발달단계별로 주요 위해원인 품목*도 차이를 보였다.
 - * (영아기) 침대, (걸음마기) 바닥재, (유아기) 킥보드, (학령기) 자전거
- 소비자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.
 - 이와 더불어 어린이·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 정보 모니터링·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.

1

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(2017~2021년)

- (현황) 최근 5년간(2017~2021년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*)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09,132건이 접수되었으며, 2021년은 15,871건으로 전년(18,494건) 대비 14.2% 감소하였다.

* CISS(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- 이는 종합병원을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가 많은 어린이 위해정보의 특성상, 팬데믹으로 인해 어린이 환자가 크게 감소*한 영향으로 분석된다.

* 병원 접수 건수 '19년 대비 '21년 37.0% 감소(24,354건 → 15,343건)

[연도별 위해정보 접수현황]

(단위: 건, %)

| 구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| 25,699 | 24,097 | 24,971 | 18,494 | 15,871 |
| 전년대비 증감률 | (14.0) | (△6.2) | (3.6) | (△25.9) | (△14.2) |
| 병원 수집 건수 | 24,796 | 23,415 | 24,354 | 17,612 | 15,343 |

※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95% 이상이 병원에서 수집됨.

- (발달단계별) 최근 5년간 ‘걸음마기’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, 2021년에는 ‘걸음마기’ 6,485건(40.9%), ‘학령기’ 3,867건(24.3%), ‘유아기’ 3,850건(24.3%), ‘영아기’ 1,669건(10.5%) 순이었다.

[연도별 위해정보 접수현황]

(단위: 건, %)

| 구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취학전 | 영아기 (0세) | 2,340 (9.1) | 1,986 (8.2) | 2,167 (8.7) | 1,720 (9.3) | 1,669 (10.5) |
| | 걸음마기(1~3세) | 12,186 (47.4) | 11,678 (48.5) | 11,495 (46.0) | 7,933 (42.9) | 6,485 (40.9) |
| | 유아기 (4~6세) | 5,907 (23.0) | 5,586 (23.2) | 5,669 (22.7) | 4,438 (24.0) | 3,850 (24.3) |
| | 소계 | 20,433 (79.5) | 19,250 (79.9) | 19,331 (77.4) | 14,091 (76.2) | 12,004 (75.7) |
| 학령기 (7~14세) | 5,266 (20.5) | 4,847 (20.1) | 5,640 (22.6) | 4,403 (23.8) | 3,867 (24.3) | |
| 합계 | 25,699 (100) | 24,097 (100) | 24,971 (100) | 18,494 (100) | 15,871 (100) | |

가. '주택'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, 연령 증가할수록 실외에서 발생 비율 높아져

- (장소별) 최근 5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'주택' 75,201건(68.9%), '도로 및 인도' 5,799건(5.3%), '교육시설' 5,617건(5.1%)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. 연도별로 '주택'은 매년 안전사고 발생장소의 67% 이상을 차지했으며, 2021년에도 71.1%(15,871건 중 11,286건)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.
- '주택'은 모든 어린이 발달단계에서 1위 발생장소이지만,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'주택'의 비율은 감소(89.3%→79.2%→63.7%→44.7%)하고, '도로 및 인도', '교육시설', '여가·문화 및 놀이시설' 등 실외장소의 비율이 증가했다.

[발달단계별 주요 위해발생장소(2017~2021년)]

(단위: 건, (%))

| 구분 | 영아기 (0세) | | 걸음마기 (1~3세) | | 유아기 (4~6세) | | 학령기 (7~14세)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주택 | 8,823 | (89.3) | 39,427 | (79.2) | 16,203 | (63.7) | 10,748 | (44.7) |
| 도로 및 인도 | 125 | (1.3) | 1,205 | (2.4) | 1,556 | (6.1) | 2,913 | (12.1) |
| 교육시설 | 28 | (0.3) | 1,512 | (3.0) | 1,529 | (6.0) | 2,548 | (10.6) |
| 여가·문화 및 놀이시설 | 40 | (0.4) | 1,727 | (3.5) | 1,996 | (7.8) | 1,832 | (7.6) |

나. 영아기 '침대', 유아기 '킥보드' 등 발달단계별로 위해원인 품목 달라

- (위해원인별 상위 품목) '미끄러짐·넘어짐', '부딪힘', '추락' 사고는 모든 어린이 발달단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, 연령이 증가할수록 '미끄러짐·넘어짐' 사고 비중이 높아지고 '추락' 사고 비중은 낮아졌다.
- '영아기'(0세)의 경우 '추락'이 53.4%(영아기 전체 9,882건 중 5,279건)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, 그 외 연령에서는 '미끄러짐·넘어짐'이 1위를 차지했다.
 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'영아기'(0세)의 '추락' 사고 품목으로는 '침대'가 3,441건(65.2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'소파' 500건(9.5%), '유모차' 264건(5.0%) 등의 순으로 접수되어 해당 물품을 이용할 때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-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의 경우 발달단계별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, ‘걸음마기’(1~3세)는 ‘목재마루재’ 2,967건(22.0%), ‘비닐바닥재’ 2,876건(21.3%), ‘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’ 2,324건(17.2%)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으며,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.
- 반면 ‘유아기’(4~6세)는 ‘키편드’ 1,703건(20.4%), ‘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’ 1,257건(15.1%), ‘비닐바닥재’ 957건(11.5%) 순이었으며, ‘학령기’(7~14세)는 ‘어린이 자전거’ 2,048건(25.3%), ‘키편드’ 993건(12.3%), ‘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’ 664건(8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‘걸음마기’ 이하(0~3세)의 경우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, ‘가구’ 및 ‘바닥재’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나, ‘유아기’ 이상(4~14세)에서는 실외품목이 상위를 차지했다.

[위해원인별 상위품목(소분류) 현황(2017~2021년)]

(단위: 건, (%))

| 구분 | 영아기 (0세) | 구분 | 걸음마기 (1~3세) | 유아기 (4~6세) | 학령기 (7~14세) |
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추락 53.4% (영아기 전체 9,882건 중 5,279건) | 침대 | 미끄러짐·넘어짐* | 목재마루재 | 키편드 | 어린이 자전거 |
| | 3,441 (65.2) | | 2,967 (22.0) | 1,703 (20.4) | 2,048 (25.3) |
| | 소파 | | 비닐바닥재 |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| 키편드 |
| | 500 (9.5) | | 2,876 (21.3) | 1,257 (15.1) | 993 (12.3) |
| 유모차 |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| | 비닐바닥재 |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| |
| 264 (5.0) | 2,324 (17.2) | | 957 (11.5) | 664 (8.2) | |

* 걸음마기 27.1%(49,777건 중 13,493건) 유아기 32.8% (25,450건 중 8,349건), 학령기 33.6% (24,023건 중 8,080건)

[발달단계별 주요 위해 사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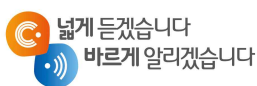
| | |
|------|--|
| 영아기 | (7개월, 남) 2021년 9월 침대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후 구토가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 |
| 걸음마기 | (만1세, 여) 2021년 12월 아파트 거실에서 넘어지며 테이블에 부딪혀 입술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 |
| 유아기 | (만6세, 여) 2021년 6월 키편드를 타다 넘어져 입술에 열상과 치아의 손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 |
| 학령기 | (만8세, 남) 2021년 6월 자전거를 타다 다리가 뒷바퀴 프레임에 끼인 채로 넘어져 다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 |

- 어린이 안전사고의 경우 ‘걸음마기’ 이하(0~3세)는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, ‘유아기’ 이상(4~14세)부터 환경과 더불어 어린이의 행동적인 특성이 안전 사고 발생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,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기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.
-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
 - ▲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가드를 설치하고,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바닥 매트 등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할 것
 - ▲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,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할 것
 - ▲ 어린이가 바퀴 달린 것(자전거, 킥보드 등)을 탈 때는 항상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타도록 지도할 것
 - ▲ 어린이가 바퀴 달린 것(자전거, 킥보드 등)을 타기 전에 충분히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.

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·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·분석하고, ‘어린이안전넷’을 통해 안전 콘텐츠 등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.

* 어린이안전넷(www.isafe.go.kr) :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으로서 어린이 안전사고나 위해유형, 예방정보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

- <붙임> 1.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(2017~2021년)
 2. 발달단계별 어린이 안전사고 비교 분석(2017~2021년)
 3.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사항 및 예방 방법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kca.go.kr



붙임 1

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(2017~2021년)

- (현황) 최근 5년간(2017~2021년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*)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09,132건이 접수되었으며, 2021년은 15,871건으로 전년(18,494건) 대비 14.2% 감소함.

* CISS(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- 종합병원을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가 많은 어린이 위해정보 특성상, 팬데믹으로 인한 어린이 환자가 크게 감소*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됨.

* 병원 접수 건수 '19년 대비 '21년 37.0% 감소(24,354건 → 15,343건)

[연도별 어린이 위해정보 접수현황]

(단위: 건, %)

| 구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| 25,699 | 24,097 | 24,971 | 18,494 | 15,871 |
| 전년대비 증감률 | (14.0) | (△6.2) | (3.6) | (△25.9) | (△14.2) |
| 병원 수집 건수 | 24,796 | 23,415 | 24,354 | 17,612 | 15,343 |

※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 중 95% 이상이 병원에서 수집됨.

- (발달단계별) 최근 5년간 ‘걸음마기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, 2021년 에도 ‘걸음마기’가 6,485건(40.9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학령기’ 3,867건(24.3%), ‘유아기’ 3,850건(24.3%), ‘영아기’ 1,669건(10.5%) 순이었음.

[발달단계별 현황]

(단위: 건, %)

| 구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취학전 | 영아기 (0세) | 2,340 (9.1) | 1,986 (8.2) | 2,167 (8.7) | 1,720 (9.3) | 1,669 (10.5) |
| | 걸음마기 (1~3세) | 12,186 (47.4) | 11,678 (48.5) | 11,495 (46.0) | 7,933 (42.9) | 6,485 (40.9) |
| | 유아기 (4~6세) | 5,907 (23.0) | 5,586 (23.2) | 5,669 (22.7) | 4,438 (24.0) | 3,850 (24.3) |
| | 소계 | 20,433 (79.5) | 19,250 (79.9) | 19,331 (77.4) | 14,091 (76.2) | 12,004 (75.7) |
| 학령기 (7~14세) | 5,266 (20.5) | 4,847 (20.1) | 5,640 (22.6) | 4,403 (23.8) | 3,867 (24.3) | |
| 합계 | 25,699 (100.0) | 24,097 (100.0) | 24,971 (100.0) | 18,494 (100.0) | 15,871 (100.0) | |

- (발생장소) 최근 5년간 ‘주택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,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장소의 67% 이상을 차지함.

[상위 5개 발생장소별 현황]

(단위: 건, (%))

| 구분(대분류)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주택 | 17,605 (68.5) | 16,343 (67.8) | 16,749 (67.1) | 13,218 (71.5) | 11,286 (71.1) |
| 도로 및 인도 | 1,132 (4.4) | 789 (3.3) | 1,147 (4.6) | 1,528 (8.3) | 1,203 (7.6) |
| 교육시설 | 1,492 (5.8) | 1,474 (6.1) | 1,602 (6.4) | 513 (2.8) | 536 (3.4) |
|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| 1,395 (5.4) | 1,309 (5.4) | 1,500 (6.0) | 788 (4.3) | 603 (3.8) |
| 숙박 및 음식점 | 812 (3.2) | 827 (3.4) | 725 (2.9) | 473 (2.5) | 352 (2.2) |

- (품목) 최근 5년간 ‘가구 및 가구설비’, ‘건축/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’, ‘스포츠 및 취미용품’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, 매년 유사한 추이로 나타남.
 - 특히, ‘완구 및 게임용품’의 경우 2020년부터 1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, 2021년에는 2,022건(12.7%)을 차지함.

[품목별 현황]

(단위 : 건, (%))

| 구분(대분류)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가구 및 가구설비 | 8,216 (32.0) | 7,547 (31.3) | 6,990 (28.0) | 3,745 (20.3) | 3,448 (21.7) |
| 건축/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| 4,495 (17.5) | 4,389 (18.2) | 4,334 (17.4) | 3,934 (21.3) | 3,205 (20.2) |
| 스포츠 및 취미용품 | 3,093 (12.0) | 2,680 (11.1) | 3,673 (14.7) | 2,809 (15.2) | 2,613 (16.5) |
| 완구 및 게임용품 | 1,881 (7.3) | 1,937 (8.0) | 2,473 (9.9) | 2,478 (13.4) | 2,022 (12.7) |
| 건물, 시설 및 서비스 | 2,228 (8.7) | 2,026 (8.4) | 1,718 (6.9) | 769 (4.2) | 635 (4.0) |

붙임 2

발달단계별 어린이 안전사고 비교 분석(2017~2021년)

- (발생장소)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‘주택’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, ‘도로 및 인도’, ‘교육시설’, ‘여가·문화 및 놀이시설’ 등 실외장소의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.

[발달단계별 발생장소(2017~2021년)]

(단위: 건, (%))

| 구분 | 영아기 (0세) | | 걸음마기 (1~3세) | | 유아기 (4~6세) | | 학령기 (7~14세)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주택 | 8,823 | (89.3) | 39,427 | (79.2) | 16,203 | (63.7) | 10,748 | (44.7) |
| 도로 및 인도 | 125 | (1.3) | 1,205 | (2.4) | 1,556 | (6.1) | 2,913 | (12.1) |
| 교육시설 | 28 | (0.3) | 1,512 | (3.0) | 1,529 | (6.0) | 2,548 | (10.6) |
|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| 40 | (0.4) | 1,727 | (3.5) | 1,996 | (7.8) | 1,832 | (7.6) |

- (품목) 발달단계별 1위 발생 품목을 보면 ‘영아기’는 ‘침실가구’가 37.6%, ‘걸음마기’와 ‘유아기’는 ‘바닥재’가 각각 16.5%, 12.5%, ‘학령기’는 ‘놀이터 시설’이 12.0%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.
- ‘영아기’와 ‘걸음마기’는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‘가구’, ‘바닥재’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나, ‘유아기’와 ‘학령기’는 ‘놀이터 시설’, ‘자전거’ 등 실외품목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더욱 높았음.

[발달단계별 위해품목(중분류) 현황(2017~2021년)]

(단위: 건, (%))

| 구분 | 영아기(0세) | 걸음마기(1~3세) | 유아기(4~6세) | 학령기(7~14세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침실가구 (3,712건, 37.6%) | 바닥재 (8,218건, 16.5%) | 바닥재 (3,175건, 12.5%) | 놀이터 시설 (2,872건, 12.0%) |
| 2 | 유아용 가구 (847건, 8.6%) | 침실가구 (4,733건, 9.5%) | 놀이터 시설 (2,579건, 10.1%) | 자전거 (2,472건, 10.3%) |
| 3 | 거실가구 (721건, 7.3%) | 완구 (3,505건, 7.0%) |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(1,941건, 7.6%) | 바닥재 (1,427건, 5.9%) |
| 4 | 바닥재 (625건, 6.3%) | 거실가구 (3,411건, 6.9%) | 완구 (1,809건, 7.1%) | 필드 및 코트 운동장비 (1,313건, 5.5%) |
| 5 | 주방가구 (320건, 3.2%) | 문 (2,818건, 5.7%) | 침실가구 (1,647건, 6.5%) |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(1,155건, 4.8%) |

- (위해원인별)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, ‘부딪힘’, ‘추락’ 사고는 모든 발달단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, 연령이 증가할수록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 사고는 점차 비중이 높아졌으며, ‘추락’ 사고는 점차 낮아짐.
- ‘부딪힘’ 사고는 걸음이 서툰 ‘걸음마기’에 19.9%로 발달단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, ‘유아기’와 ‘학령기’에 각각 18.4%, 13.0%를 차지함.

[발달단계별 위해원인 현황(2017~2021년)]

(단위: 건, (%))

| 구분 | 영아기(0세) | 걸음마기(1~3세) | 유아기(4~6세) | 학령기(7~14세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추락 (5,279건, 53.4%) | 미끄러짐·넘어짐 (13,493건, 27.1%) | 미끄러짐·넘어짐 (8,349건, 32.8%) | 미끄러짐·넘어짐 (8,080건, 33.6%) |
| 2 | 부딪힘 (807건, 8.2%) | 부딪힘 (9,888건, 19.9%) | 부딪힘 (4,680건, 18.4%) | 부딪힘 (3,130건, 13.0%) |
| 3 | 미끄러짐·넘어짐 (806건, 8.2%) | 추락 (9,421건, 18.9%) | 추락 (4,325건, 17.0%) | 추락 (2,913건, 12.1%) |
| 4 | 식품 섭취로 인한 위해 (771건, 7.8%) | 이물질 삼킴/흡인 (5,035건, 10.1%) | 이물질 삼킴/흡인 (2,231건, 8.8%) |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 (2,514건, 10.5%) |
| 5 | 이물질 삼킴/흡인 (535건, 5.4%) | 놀림·끼임 (3,922건, 7.9%) | 놀림·끼임 (1,879건, 7.4%) | 충돌·추돌 등 물리적 충격 (1,798건, 7.5%) |

- (원인별 상위 품목) ‘영아기’(0세)의 경우 ‘추락’이 53.4%(9,882건 중 5,279건)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, 그 외의 연령에서는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이 1위를 차지함. ‘영아기’(0세)의 ‘추락’ 사고 품목으로는 ‘침대’가 3,441건(65.2%)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‘소파’ 500건(9.5%), ‘유모차’ 264건(5.0%) 등의 순임.
-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의 경우 발달단계별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, ‘걸음마기’(1~3세)는 ‘목재마루재’ 2,967건(22.0%), ‘비닐바닥재’ 2,876건(21.3%), ‘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’ 2,324건(17.2%)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음.
- 반면, ‘유아기’(4~6세)는 ‘키보드’ 1,703건(20.4%), ‘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’ 1,257건(15.1%), ‘비닐바닥재’ 957건(11.5%) 순이었으며, ‘학령기’(7~14세)는 ‘어린이 자전거’ 2,048건(25.3%), ‘키보드’ 993건(12.3%), ‘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’ 664건(8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- ‘걸음마기’ 이전(0~3세)의 경우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, ‘가구’ 및 ‘바닥재’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나, ‘유아기’ 이상(4~14세)에서는 다양한 실외품목이 상위를 차지함.

[위해원인별 상위품목(소분류) 현황(2017~2021년)]

(단위: 건, (%))

| 구분 | 영아기 (0세) | 구분 | 걸음마기 (1~3세) | 유아기 (4~6세) | 학령기 (7~14세) |
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추락 53.4% (9,882건 중 5,279건) | 침대 | 미끄러짐 넘어짐* | 목재마루재 | 킥보드 | 어린이 자전거 |
| | 3,441 (65.2) | | 2,967 (22.0) | 1,703 (20.4) | 2,048 (25.3) |
| | 소파 | | 비닐바닥재 |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| 킥보드 |
| | 500 (9.5) | | 2,876 (21.3) | 1,257 (15.1) | 993 (12.3) |
| 유모차 |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| 비닐바닥재 |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| | |
| 264 (5.0) | 2,324 (17.2) | 957 (11.5) | 664 (8.2) | | |

* 걸음마기 27.1%(49,777건 중 13,493건) 유아기 32.8% (25,450건 중 8,349건), 학령기 33.6% (24,023건 중 8,080건)

[참고 어린이 발달단계에 따른 분류]

| 구분* | | 분류 |
|------|----------|------|
| 취학 전 | 0세** | 영아기 |
| | 1세 ~ 3세 | 걸음마기 |
| | 4세 ~ 6세 | 유아기 |
| 취학 후 | 7세 ~ 14세 | 학령기 |

* ‘어린이’는 법령에 따라 지칭하는 연령대 및 명칭이 상이하며 본 보고서에는 통계청 유소년 인구 기준에 맞추어 0세부터 14세를 유소년 인구로 보고 이 연령대에 ‘어린이’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.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어린이의 연령범위 위 표와 같이 4단계로 분류함.

** 나이는 ‘만’ 기준

□ **영아기(0세)**

- 침대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아이를 침대에 혼자 두지 말고 침대에는 안전가드, 바닥에는 완충재를 설치해 주세요.
- 유모차, 카시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띠를 채워 이용해주세요.

□ **걸음마기(1~3세)**

- 미끄러짐·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바닥재, 매트 등을 사용해 주세요.
- 베란다, 창문 밑에는 아이가 딛고 올라갈 만한 물건을 두지 말고, 어린이들이 침대, 소파, 서랍장 등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.
- 뾰족한 가구 모서리에는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해 주세요.

□ **유아기(4~6세)**

- 바퀴 달린 탈것(자전거, 킥보드 등)을 탈 때는 항상 헬멧, 보호대를 착용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이용하도록 지도해주세요.
- 놀이터에는 항상 보호자가 함께 가고, 아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옆에서 꼭 지켜보세요.

□ **학령기(7~14세)**

- 바퀴 달린 탈것(자전거, 킥보드 등)을 타기 전에 충분히 사용법을 숙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
- 놀이를 할 때는 편한 운동화, 바지 등을 착용하도록 해주시고, 목걸이 등 장신구는 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.
- 학교,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려 주세요.